

SK(주), 신기술 발명 땀 매출 5% 포상금

SK(주)가 회사의 이익 증대 등에 기여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거액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 SK(주)는 올해 초 도입한 직무발명포상제에 따라 대덕 SK기술원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4개 사내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포상제는 최근 1년간 성과가 있는 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심사해 그 기술을 외부에 팔아 발생한 이익이나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만큼 포상(5%를)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기술이 사업이나 공정에 적용돼 개선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

문에 포상금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촉매 반응을 통해 BTX(벤젠·톨루엔·자일렌)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 있다. 이는 인도와 대만 등지의 주요 정유공장에 수출돼 1백억여원의 로열티 수입을 가져온 기술로서 최대 5억원 가량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SK(주)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이고 정당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스미, 굴뚝 폐열 이용한 연료비 절약 온수기 개발

굴뚝으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연료비를 최고 45%까지 줄일 수 있는 온수기가 개발됐다. 따스미(대표 김규순/www.DDASOMI.com)는 주택, 모텔, 사우나, 기숙사, 병원, 중소기업 공장, 농업용 온실 등에서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및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 온수를 생산하는 장치를 개발, 제품화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중형 및 소형 보일러엔 열교환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용된 연료에너지 가운데 40%가 굴뚝으로 버려지는 것을 회수하기 위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배

기열은 보통 섭씨 영상 2백도를 넘는데 이를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객실 35개를 가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R모텔의 경우 최근 1개월 동안 가동한 결과 온수전용 보일러를 활용하지 않고도 객실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어 한 달 동안 약 6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따스미는 품질보증 Q마크와 실용신안을 얻었고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김규찬 본부장은 '이 온수기를 활용하면 보통 6개월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글루시큐리티, '실시간 보안감사' 특허 취득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www.igloosec.co.kr)는 최근 '실시간 보안감사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실시간 보안감사방법이란 네트워크 환경에서 해킹과 같은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이벤트 로그와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침입 패턴을 파악하는 한편 침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술이다.

또 침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추후 시스템 사용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보안 감사 방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득춘 사장은 '통합보안관리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획득으로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특허 출원 및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색깔에도 뜻이 있다?

일부 원숭이를 제외하면 인간만이 색깔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경우 낮에는 원추체, 밤에는 간상체라는 시신경이 색깔을 관장하는데 이 때문에 낮에는 노랑과 빨강 계통이 잘 보이고 밤에는 파랑과 초록이 더 잘 보인다.



파란색

파란색은 망막의 가장 깊은 곳에 상이 맺혀 상대적으로 사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파란색 자동차는 통계적으로 다른 색 차에 비해 충돌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파랑은 이상과 창의를 상징하는 젊음의 색이기도 하여 신입사원이 면접을 볼 때 의상 색상으로 선택하면 효과가 있다.

초록색

의사의 수술복은 왜 초록색일까? 의사는 수술할 때 빨간 피를 오래 보게 된다. 초록은 빨강의 보색으로서 의사의 피로해진 눈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피가 묻어도 갈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혐오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록은 특정한 색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잔상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여 수술의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 초록색은 빛의 파장 중심에 있어 우리 눈의 망막에 가장 정확하게 잡힌다. 그래서 초록은 기업 마케팅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빨간색

명절이나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투는 노랑과 파랑, 검정 등 원색을 쓰는데 이 중에서도 기본이 빨강이다. 화투는 끊임없는 긴장과 집중이 필요하여 눈에 잘 띄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빨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화투판이나 카지노의 게임 판은 모두 눈에 편한 색인 초록색을 사용하는데 이는 빨강과 보색을 이뤄 게임 도구를 눈에 띄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갓 결혼한 신부가 빨강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입는 이유도 보색 대비를 통해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대학 교수, 콜레스테롤 낮추는 닭고기 개발

최근 웰빙열풍과 함께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대학 교수가 영양소를 획기적으로 높인 닭고기를 개발했다.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전공 박병성 교수는 인체 생리활성에 유익한 감마지방산이 강화된 계피향 기능성 닭고기를 개발했다. 감마지방산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예방하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LDL)과 중성지방을 낮추주며 여성

의 생리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사람의 모유에 많이 포함돼 있다. 이 물질은 달맞이꽃 등 일부 식물에만 함유된 것으로 최근 일본 미국 등지의 식품학회에서 중요도가 보고되고 있다. 박 교수는 감마지방산과 계피가루를 미세한 캡슐에 담고 이를 변환기술을 거쳐 닭고기에 축적했다. 이 식품은 국내특허출원을 마쳤으며 국제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다.



이글루시큐리티는 한국표준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최상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란,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몫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토론토대 화학과 한인학생 '안전양초' 국제특허 출원



'안전양초'를 개발해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국제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캐나다 토론토대 화학과 이영민 양.

캐나다 토론토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 동포 이영민 양(23·여)이 경제적이면서도 화재위험을 최소화시킨 양초를 개발, 국제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이우일(59)·손점애씨(55)의 2남1녀 중 막내로 지난 '96년 캐나다로 이민한 이 양은 2년 전 '안전양초'로 한국 특허청이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동상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이 양은 '이번 '안전양초'는 아버지와 함께 제작했다'며 '기존의 초보다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소캡(초틀캡)을 달았다'고 말했다.

연소캡은 탄소덩어리로 된 1.5~2cm 정도의 심지와 유리캡, 플라스틱 조절날개 등을 하나로 연결, 조립해 만들며 초가 모두 연소하거나 넘어졌을 때는 촛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연소캡의 모양과 컬러의 선택, 유리캡의 모양에 따라 빛의 형태와 그림자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예술적인 가치도 크다.

국제특허 출원 관계로 자세한 제작과정을 공개 못한다는 이 양은 '한국의 창조지가 심지의 핵심원료'라며 '시골에서 백지로 석유등잔의 심지를 만들어 사용했던 기억을 살려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7천5백달러에 달하는 등록비가 없어 애태우고 있는 이 양은 '후원자 또는 동업자를 찾고 있다'며 '국제특허를 출원하면 2005년 5월 뉴욕의 세계발명품전시회 참가는 물론 현지 유명 업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국내 발광다이오드 '지재권 분쟁' 급부상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계에 또다시 '지적재산권 분쟁'이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인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지난해 12월 국내 경쟁사를 상대로 자사의 백색 LED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관련 경고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국내 경쟁사가 백색 LED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침해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폐기 및 향후 개발방지 약속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해엔 국내 LED업체인 에스에쓰아이를 상대로 백색 LE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또 다른 업체인 L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국내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견제정책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서울반도체의 움직임은 국내 LED 시장이 청색 LED에서 백색 LED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잠재 위협이 되는 후발 업체들의 진입을 조기에 견제하기 위한 것이된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백색 LED는 청색 LED에 형광체를 도포해 백색을 구현하는 제조방식으로, 세계 선두업체인 일본 니치아화학이 이 부문에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올 들어 서울반도체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 LED업체들이 속속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 특허 및 독자 특허를 확보해놓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서 국내 업체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니치아화학이 지난해 국내 경기도 L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고, 서울반도체도 이같은 특허 전쟁에 합류함으로써 국내 LED산업을 둘러싼 전면적인 특허 분쟁이 이미 초입기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흙친기술'로 제품개발 추진한 일당에 벌금형 선고

파견 근무를 나간 벤처업체의 핵심기술을 훔쳐 특허까지 낸 뒤 회사를 차려 제품을 개발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한 일당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진형 판사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6), 강모(31)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7백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씨 등은 올해 초 비밀유지 서약을 한 뒤 이동통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업체인 T사에 파견 근무를 나가 기술개발을 도왔다. T사의 대표이사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10년간 전자통신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경력의 소유자로, 사재 8억원을 투자했을 정도로 공을 들여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노 씨 등은 이 특허기술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도와주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 '동일 주파수 중계전송을 위한 간섭제거장치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겠다'며 마치 독자기술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부에 우수 신기술 지정업체 서류를 냈다.

이들은 T사 실험실에서 몰래 찍은 실험 결과와 설계도까지 서류에 첨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바라던 대로 정통부로부터 우수 신기술 지정업체로 선정됐고, 1차 정보화촉진기금 1억3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흙친 남의 핵심기술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기술로 특허를 냈지만 원개발사인 T사와 특허분쟁을 겪었고, 기술력도 시원치 않아 이들은 제품을 상용화해도 특허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척될 수 없다고 판단, 개발을 포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8천만원을 정통부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도 핵심기술로 이득을 취하려했다기보다 이를 이용해 상용제품을 개발하려는 정상이 참작된다'며 '정보화촉진기금 일부를 반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에 대한 사기와 달리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는 피고인의 잘못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역시 투자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의 무사안일을 질책했다.

알면 편리한 겨울 옷 관리 요령

사계절 중 옷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때가 겨울이다. 겨울옷은 니트나 모직처럼 동물성 소재가 많아 보풀이 일거나 먼지가 쉽게 달라붙기 때문. 자주 갈아입을 수도, 세탁할 수도 없어 냄새나 얼룩 등에도 무방비 상태이기 쉬운 겨울옷, 소재별 관리요령을 알아보자.

보풀이 심하게 일어난 니트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풀제거기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보풀이 심하게 일어난 니트

보풀을 손으로 뜯어내면 보풀이 다시 생기므로 미용가위나 시판되는 보풀제거기로 없앨 것. 세탁할 때는 뒤집어서 마찰을 줄이는 것이 기본.

물론 섬유 속 먼지가 제거된다.

안감이 밀려나온 코트

안감은 진동둘레에서 걸감과 연결돼 있는데 안감이 밀려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끊어졌다는 얘기. 진동둘레를 군데군데 흠질로 잡아주면 된다. 소맷단을 다림질로 한 번 눌러주는 것도 방법.

늘어난 소맷단과 목둘레

심하게 늘어난 경우, 고무줄이 들어간 실로 흠질을 한 번 해주면 손목 부분에 탄력이 생겨 흘러내리지 않는다. 살짝 늘어났을 때는 일반 실로 흠질한 뒤 스팀을 쏘이면 탄력이 생긴다.

영커버린 털 목도리

스팀다리미로 스팀을 쐬면서 빗질하되 처음엔 결 반대 방향으로, 다시 털이 난 방향으로 빗질해주면 고르게 자리 잡힌다.

먼지가 달라붙은 검은 모직 코트

정전기가 심한 옷은 먼지도 잘 묻어나므로 세탁할 때 섬유 유연제를 사용할 것. 이미 먼지가 묻었다면 끈끈이 롤러를 쓰거나 스펀지에 물을 묻혀 결대로 문질러 주면 쉽게 없어진다.

뽀뽀해진 가죽

1년에 한번씩은 영양크림이나 우유를 문힌 가죽으로 가죽 옷 전체를 문질러 줄 것.

퀴퀴한 냄새가 나는 모직 코트

뽀뽀했을 때 바로바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먼지를 탁탁 털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 섬유 탈취제를 뿌려 반나절쯤 밖에 걸어두면 냄새는

털이 뭉친 오리털 점퍼

세탁한 뒤 털이 한 쪽으로 뭉쳤다면 그늘에 펴서 말리는데, 다 마른 뒤 막대기로 톡톡여주면 뭉쳤던 털들이 다시 살아난다.